

심판

Urteil

1. 어원 및 개념정의

Urteil은 동사 teilen에서 유래한 erteilen에서 파생되었으며, 본래의 뜻은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의미는 곧 ‘판사가 행하는 판결’, 혹은 ‘재판에서 행하는 판사의 결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의견의 표출’, 혹은 ‘숙고된 입장의 표명’을 뜻하게도 되었다.



<미켈란젤로 솔로몬의 판결>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의 관계나 인식의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법정에서 쓰이는 의미로서의 심판은 어떤 분쟁 상태나 대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법률적인 판결을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법정에서의 심판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

심판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신’인 경우도 있다. 이때의 심판은 인간 행동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와 인류 전체의 속성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상의 기저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스스로의 허물을 인식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인간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인 신이 인간들의 정의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2. 모티프 발달사

신에 의한 심판의 기록은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원전 1800년 전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물을 이용해서 신의 심판을 알아본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구약성서 민수기 5장 21절 이하와 사무엘 상 10장 17절 이하도 마찬가지로 신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행해지는 심판은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신의 뜻에 맡기는 의미에서의 심판이다. 이와는 다른 신의 심판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신이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에 누누이 나오듯이 신은 자비로우면서도 무서운 신이기도 하다.

신의 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답이다. 기독교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을 받아들인 상태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많은 죄를 범한다. 이들이 범하는 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외적인 법률적 죄이며 다른 하나는 내적인 도덕적 죄이다. 법률적인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살인이고, 도덕적인 죄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는 근친상간이다.

문학작품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죄는 주로 도덕적인 죄이다.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은 인간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양심을 통해서이다. 고대문학에서 적극적으로 신의 의지가 직접 개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대 문학작품에서 그러한 예는 많지 않으며, 주로 죄를 범한 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속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친상간의 죄는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죄를 짓는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눈을 찢어 장님이 되어서 스스로를 처벌한다.

막스 프리쉬의 『호모 파버』(1957)에서도 자기 자식인지 모르고 딸과 동침을 한 주인공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는다. 그는 딸의 죽음이 자기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한다. 이러한 양심을 통한 죄의식 자체를 신의 의지가 반영된 것, 즉 신의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카프카의 『소송』(1925)은 인간 존재의 불안과 내면적인 죄의식을 다루고 있다. 원제목



<정의 여신>

인 Prozeß는 심판이 아니라 재판의 소송을 의미하는 뜻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재판을 통한 ‘심판’과 관계가 있다. 자신의 30번째 생일날 아침에 기소당한 주인공 요셉 K는 자신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형사들의 취조에 순순히 응하는데, 이러한 그의 태도는 독자로 하여금, 체포가 내적인 죄의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결국 끝까지 그의 구체적인 죄는 밝혀지지 않는다. 마지막에 자신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의 태도는, 그가 사형이라는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도덕적인 죄를 법률적으로 처형한다는 특이한 작품이다.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고 Der Urteil*』(1913)이다. 주인공 게오르크는 아버지에게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선고받고 실행에 옮기는데, 여기서도 아들 게오르크의 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죄가 아버지와 관련되는 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작품에서도 도덕적인 죄에 사형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독특한 구조가 나타난다.

뒤렌마트의 『노부인의 방문』에서도 죄와 심판의 모티프가 나온다. 이 작품에서의 심판

* 심판으로도 번역 가능하나, 한국 카프카학회나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번역본이 『선고』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선고』라는 번역제목을 사용한다.

은 사적으로 행해진다. 여 주인공 클레어는 자신이 젊었을 때 부당하게 가난한 자신을 버리고 부자였던 여자와 결혼을 한 예 애인 일에게 복수하게 위해서 30년 만에 고향을 찾는다. 그녀는 사적인 복수를 공적인 이름으로 행하기 위해서 황당한 제안을 하는데, 처음에는 반대했던 주민들이 점차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클레어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한다. 돈 때문에 주민 전체가 사적인 심판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현대 사회의 도덕적 허약함을 풍자한 작품이다.

3. 모티프 유형

심판의 주체에 따라 종교적 심판, 법률적 심판, 도덕적 심판, 그리고 부조리한 심판 등으로 나누어진다.

1) 종교적 심판의 주체는 당연히 신이거나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는 성직자이거나 종교기관이다. 중세의 종교재판에 의한 과문이나 마녀사냥이 대표적인 종교적 심판의 예이다. 이러한 종교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을 믿지 않는 행위이다. 그 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적인 미덕을 해치는 행위들, 예를 들면 질투, 오만, 음탕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규범이 종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종교적 심판과 도덕적 심판의 경계는 불분명한 것이 보통이다.

2) 현대 사회에서 법정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심판은 법률적 심판이다. 행위주체는 국가 공권력이며, 처벌을 받는 이는 법을 어긴 사람이다. 죄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벌을 받는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법률적인 심판이 일시적으로 공권력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엄밀히 말해서 불법적인 행위이다. 법률적 심판이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경우, 이러한 심판이 정의롭게 행해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뒤렌마트: 『법』)

3) 도덕적 심판에서 판단의 기준은 사회공동체의 규범이며, 심판을 행하는 주체는 주로 마을의 연장자이지만, 종종 마을 구성원 전체가 되기도 한다. 법률적인 심판에 의한 처벌과 비교하면 도덕적 심판에 의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위반하는 자 전체를 벌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전의 마을에서 부모에게 불효한 이를 동네 사람들이 '명석말이' 벌을 주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명령하는 것이 도덕적 심판의 예이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에게 벌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도덕적 심판의 한 예가 될 것이다.(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4) '부조리한 심판'(카프카: 『심판 Der Prozeß』)의 경우 심판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다. 처벌을 받는 이는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 공권력

조직, 비밀스러운 사적인 단체, 혹은 처벌을 받는 이의 내적인 도덕률이나 양심이 자신을 처벌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의 주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지도 모르는 처벌을 받는 개개인이 느끼는 존재의 불안함이나 삶의 부조리가 바로 이러한 심판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강조되는 것들이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오만, 질투, 분노, 탐욕, 음탕, 불효, 불신
	살인, 근친상간, 약탈, 사기, 거짓말, 방화
	성적 일탈, 강간, 폭행
	부모에 대한 죄책감,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
	신을 믿지 않는 것
과정	양심의 가책
	허구적인 알리바이, 두려움, 후회
	약물 남용, 폭음
	소외감, 도주
	가족 구성원간의 저주와 심판
결과	파산, 파문
	가족의 해체, 이혼
	교도소 행, 정신병원 행
	알콜중독, 마약중,
	죽음(자살)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선고 Das Urteil』*

작가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1883-1924)
장르	소설
생성년도	1913
등장인물	게오르크 벤테만: 주인공.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상인. 변창

* 이주동(역): 카프카 전집 1, 변신, 출판사 숲, 1997.

	<p>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2년 전에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p> <p>아버지: 2년 전에 부인이 죽고 난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을 불신하는데 그 이유는 작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p>
--	--

5.1: 내용 요약



아들 게오르크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 소식을 러시아의 성 페테르부르크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알려려고 한다. 그 친구는 3년 전부터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는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들고 아버지에게 간다. 아버지도 그 친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그에게도 보낸다고 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들과 아버지와 대화는 수수께끼처럼 진행된다. 아무런 논리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독자가 이들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추측

에 의존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 몰래 러시아에 있는 아들의 친구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머니가 죽은 후에 많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한다고 아버지는 말할 뿐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인을 어머니의 죽음과 아들의 친구 배신 등과 연관을 짓고 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아들의 친구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밝혀지며, 마지막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선택한다. 이에 아들은 집을 뛰쳐나가서 강으로 달려가서 물에 빠져 죽는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조리한 심판
- 서사구조: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가서 죽을 것을 면하자 아들이 이를 실행에 옮긴다.

원인	아들에 대한 불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과정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판
결과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

6. 작품 목록

소포클레스 Sophokles: 『오이디푸스 왕 König Ödipus』

프리쉬 Max Frisch: 『호모 파버 Homo faber』 (1957)

카프카 Franz Kafka: 『심판 Der Prozeß』 (1925), 『선고 Das Urteil』 (1913)

뒤렌마트 Friedrich Dürrenmatt: 『노부인의 방문 Der Besuch der alten Dame』 (1956)

7. 연계 모티프

죄, 종교, 근친상간, 갈등, 신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 생성의 예>

모티프연계	심판 + 근친상간 + 죽음
스토리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이가 도덕적인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심판하고 자살을 한다.